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10월 12일 · 제 377호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본부장, 감수 김범중 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대형화주, 선사의 재무 투명성 요구 증가 예상
2. 중국 정부, 세계 해운규칙을 주도하는 해운강국 구축에 관심
3. 중국 · 몽골 국경경제협력구 착공
4. Agility사(社), Mærsk사와 CO₂ 감소를 위한 협정 체결

| 물류시장동향 |

1. 상하이 양산항 4기 공정, 2017년 시운행 가능
2. HL Supply Chain 이탈리아, 물류기업 MIT Safetrans 인수

| 공지사향 |

1. 2016년 제2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공모
2. UN 조달시장 기업진출 전략 세미나
3. 잉커우시 한중FTA 시범구 및 물류 환경 설명회





물류정책 · 사업동향

대형화주, 선사의 재무 투명성 요구 증가 예상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대형 화주의 선사 선정 및 얼라이언스의 파트너 선정 시 재무 건전성 대한 요구 증가가 예상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는 현재 해운선사의 높은 재무적 위험성을 노출시키고, 재무적 투명성 강화라는 새로운 요구를 발생시킴
 - 이는 대형 화주가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조치임
-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원양선사 대부분은 재무적 고통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동안 지속될 전망
 - 최근의 드류리(Drewry)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선사의 재무 상황은 Maersk, OOCL 등 2개 선사만이 주의(Cautiory) 수준에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원양선사는 재무적 고통(Distress)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
 - 이는 장기간의 운임 하락이 가장 큰 이유이며, 향후 운임이 일부 상승되더라도 과거 대비 역사적으로 폭락한 운임으로 인해 선사 대부분은 재무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재무 불건전성 및 기업 실적 미공개는 향후 화주의 신뢰도 저하의 큰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
 - 특히, MSC, Hamburg Sud 등과 같은 선사는 현재 재무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룹 실적에 포함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실질적인 공개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
 - 장기 협상 단계에서 이러한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글로벌 선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선사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와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될 것임
 - 해운시장에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최근 금융시장의 해운기업 투자 추이는 장기적 관점이 아닌 단기적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는 해운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국적선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 시급히 추진 필요
 - 향후 이러한 시장 상황은 우리나라 국적선사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해운산업의 경쟁력 자체에 대한 강화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

자료 : www.Lloydlist.com.

김근섭 부연구위원
051-797-4662, gskim@kmi.re.kr



중국 정부, 세계 해운규칙을 주도하는 해운강국 구축에 관심

- 현재 중국은 컨테이너 물동량(세계 1위), 선대 규모(세계 4위) 측면에서 이미 해운대국으로 부상함
 - 2015년 상하이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3,653.7만 TEU를 기록하여 연속 6년 세계 1위를 차지함
-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 제1의 해운중심은 런던이며, 런던이 세계 해운중심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해운분야 소프트파워에 있음
 - 해운의 소프트파워는 주로 해사중재, 해상보험 및 책임보상, 해운 중개서비스, 선박경제, 해운금융 및 파생상품 등 분야에서 구현됨
 - 중국은 비록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해운대국으로 부상하였으나, 해상보험, 해운금융, 해운 중개 등 해사서비스업이 발전하지 못했으며, 국제해운법규 제정시 발언권이 부족함
- 이에 최근 중국 교통운수부 허지엔중(何建中) 차관은 중국도 이제는 해운산업의 소프트파워를 구축 및 강화하여 물동량 중심의 해운중심에서 탈피하여 세계 해운규칙을 주도하는 해운 중심, 즉 해운강국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언급함
 - 그동안 구미 선진국들이 세계 해운산업의 게임룰을 제정해 왔으며, 국제해운 법규 및 표준 제정시 개발도상국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었음
 - 허지엔중 차관은 세계 해운규칙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측면에서의 중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해운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에 보다 많은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교통운수부 수운국 가오하이윈(高海云) 국제과장은 세계 해운산업에서 발언권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국제중재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해외 선진 중재기구 및 국제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중국의 해운문화를 해외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언급함
- 한편, 다롄해사대 차이위에촨(蒋跃川) 교수는 중국의 해운산업 소프트파워 육성을 위해서는 해운중개, 해상보험, 해사컨설팅, 해운기술서비스 등 해사서비스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 중재인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자료 : www.zgsyb.com, 2016.10.1.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



중국 · 몽골 국경경제협력구 착공

- 지난 9월 19일, 중국 얼렌하오터와 몽골 자민우드 국경사이에 조성되는 중국 · 몽골 국경경제협력구의 중국측 구역 건설이 착공됨
 - 금번 착공된 국경경제협력구는 양국간 최초의 국경경제협력구일 뿐만 아니라, 중몽러 경제회랑¹⁾ 구축의 중요 프로젝트 중 하나임
 - 중국 · 몽골 국경경제협력구는 중국측 9km², 몽골측 9km² 총 18km² 면적에 조성되며, 중국측은 네이멍구자치구 얼렌하오터(Erlanhaote)시에 몽골측은 자민우드(Zamiinuud) 자유경제구에 속함
 - 중국측 구역에는 도시 간선도로망과 연결되는 20km 구간을 포함한 총 33.5km의 도로와 지하공동구(Common duct), 상하수도시설, 전력 · 통신 시설 등이 건설될 예정임
 - 중국측 구역 건설 총 투자금은 9억 위안으로서 올해 먼저 2억 위안이 투자될 계획이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 · 몽골 국경경제협력구는 국제무역, 물류창고, 수출입가공, 전자상거래,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국제금융서비스 등 기능이 종합된 지역임
 - 올해 5월 중국과 몽골 양국은 <중몽 얼렌하오터-자민우드 국경경제협력구건설 공동 총체방안>에 서명했으며, 몽골측 자민우드 자유경제구는 이미 기초인프라 건설이 완공된 상태로 현재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진행 중에 있음



자료 : www.google.co.kr/maps



자료 : www.elht.gov.cn

자료 : www.northnews.cn, 2016.9.22.

김세원 연구원
051-797-4775, ksw@kmi.re.kr

1)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은 2014년 9월 중몽러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중국의 '실크로드경제벨트 (일대일로 전략)'와 몽골 '초원의 길' 프로젝트, 러시아 유라시아 철도망을 연계한다는 전략임



Agility사(社), Maersk사와 CO₂ 감소를 위한 협정 체결

- Agility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Maersk) 라인과 2020년까지 Agility의 화물 운송으로 발생하는 CO₂ 를 15%까지 줄이는 협정을 맺음
- 이번 협정은 머스크라인의 'Carbon Pact Challenge'의 일환으로, 이는 해운선사와 화주가 함께 유해 물질을 줄이고 환경에 악영향을 줄이려는 계획임
- American Journal of Transportation은, Agility와 머스크는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사용과 운송네트워크 및 루트의 최적화, 그리고 CO₂ 감소를 위한 여러 노력을 통해 화물운송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음
- Agility의 부사장인 Cas Pouderoyen은, “책임있는 기업들은 그들의 비즈니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상업적으로도 가치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머스크도 운송산업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인 Agility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Agility와 함께 하는 'Carbon Pact' 파트너십은 Agility의 고객과 지구에도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언급함
- Agility와 머스크 모두 컨테이너 해상운송에 있어서 친환경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국제물류 프로바이더, 해운선사 및 리테일러들의 연합체인 'Clean Cargo Working Group' 의 회원이기도 함



자료 : www.transportweekly.com

자료: www.transportweekly.com 2016.10.3.

김주혜 연구원
051-797-4779, joohye915@kmi.re.kr



물류시장동향

상하이 양산항 4기 공정, 2017년 시운행 가능

- 상하이 양산 심수항은 상하이국제해운중심 구축을 위한 핵심공정으로, SIPG가 '13·5' 계획 기간('16년~'20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양산항 4기 공정은 2014년 12월 23일에 정식 착공되었으며, SIPG에 따르면 2017년에 시운행 요건을 구비할 예정임
 - 양산항 4기 공정에는 5개의 5만톤급 및 2개의 7만톤급 컨테이너 선석과 작업선 선석 및 부대시설 건설이 포함되며, 연간 설계 통과능력은 630만 TEU임
 - 부두길이는 2,350m, 수심은 11m~15m이며, 부두의 육지면적은 223만 m²으로, 향후 선진화된 자동화 하역시설을 도입할 예정임

자료 : www.port.org.cn, 2016.9.12.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

DHL Supply Chain 이탈리아, 물류기업 MIT Safetrans 인수

- Deutsche Post DHL Group의 물류담당인 DHL Supply Chain이 이탈리아 물류전문 강소기업 MIT Safetrans 지분 100%를 인수하였음
 - MIT Safetrans는 1983년 설립이후 전문적이고 고부가가치 틈새시장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두기업으로, 첨단기술·생명과학·의료산업에서의 물류 서비스 제공에 특화하고 있음
 - 2011년 Eurodifarm 인수사례와 유사한 사례로, 이탈리아 DHL Supply Chain 운영 사이트 20곳, 직원 800명, 60개의 시설이 추가될 것 임
- 인수를 통해 DHL Supply Chain 이탈리아는 새로운 역량 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포트폴리오 확장을 기대하고 있음
 - MIT의 노하우와 탄탄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음
 - 인수된 후에도 MIT는 현재와 같이 경영독립과 유통구조를 유지하고, 유럽 첨단기술 네트워크 TENESO의 멤버 자격을 유지할 것임

자료 : www.supplychain247.com, 2016.10.5

강선미 연구원
051-797-4776, sunmikang@kmi.re.kr



2016년 제2차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비용을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신청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 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 사업

<< 지원대상사업 예시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 내용

-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매칭)

조사비용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		최대 70%	최대 50%	최대 1억원
	대기업	단독신청 시	최대 40%	최대 20%	최대 5천만원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	최대 70%	최대 50%	최대 1억원

- 접수기간 : 2016. 9. 12(월) 09:00 ~ 10. 21(금)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양식 1),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부(양식 2),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3))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세무법인 발행)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33호
(☎ 044-200-5767)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선정 방법 및 절차

- 1차 서류심사와 2차 평가위원회 심사로 진행되며, 2차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2차 심사 일시·장소는 별도 공고 혹은 기업에 개별 통지되며, 신청기업은 신청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선정결과 발표 : 2016년 10월28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67)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첨 1. 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제안서 양식 1부

3.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양식 1부. 끝.



UN 조달시장 기업진출 전략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와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UN 조달시장 진출을 돕고자 UN 본부 조달 담당관을 초청하여 다음과 같은 세미나(설명회 및 상담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 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UN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울)

-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외교부
- 일시
 - (설명회) 10.19(수) 09:00~12:30
 - (상담회) 10.19(수) 13:50~17:00, 10.20(목) 09:30~13:00
 - 상담회는 1:1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 및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진행됨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설명회), 소회의실(상담회)
- 참가기관 : 유엔조달본부(UNPD),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잠정)
- 주요내용
 - 유엔 조달본부 및 산하기구 소속 조달관 초청 설명회
 - 유엔 조달담당관과 기업인과의 1:1 상담(선정기업)
 - 유엔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 우수 사례 공유
- 진행일정(안)

일 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19 (수)	08:30~09:00	등 록	
	09:00~09:05	인사말씀	
	09:05~09:45	유엔 조달시장 현황 및 입찰프로세스	UNPD
	09:50~10:20	유엔 조달시장 입찰 참가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0:30~11:30	유엔 산하기구(UNDP, UNICEF)의 조달 제도 및 특징	UNDP, UNICEF
	11:30~12:00	우리 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 성공 사례	진출기업
	12:00~12:20	KOICA 원조 조달의 이해	KOICA
	13:50~17:30	1:1 개별 상담	UNPD, UNDP, UNICEF
10.20 (목)	09:30~13:00	1:1 개별 상담	UNPD, UNDP, UNICEF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UNPD(유엔조달본부), UNDP(유엔개발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 참가비 : 무료(세미나 자료 제공)
- 참가신청
 - 접수기한 : (설명회) 10/12(수)18:00, (상담회) 10/10(월) 18:00
 - 신청방법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상에 신청 정보 직접 입력
 - * 홈페이지 메인화면 → 행사/교육 → 행사 → 본행사 제목 → 우측 상단 '신청' 클릭
 -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별첨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jpark07@korcham.net) 신청 가능
 - 설명회 및 개별 상담회 구분 신청 가능
- 1:1 개별상담
 - 1:1 개별상담 희망기업은 별첨 회사소개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것
 - * 상담회 참가 기업은 별첨 양식 '회사소개서' 를 이메일(sjpark07@korcham.net)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회사소개서 미제출시 상담 대상에서 제외)
 - UNPD, UNDP, UNICEF 중 상담 희망 기관을 명시 할 것(복수신청 가능)
 - 1:1 개별상담 신청 후 상담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참석 가능(상담 적격업체는 10/14(금)까지 별도 통보 예정)
-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전화 : 02-6050-3543)

(부 산)

- 설명회 및 상담회 개요
 - 개최일시 : 2016. 10. 18.(화), 09:00 ~ 16:00
 - 개최장소 : 부산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룸 및 피콕룸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 참가대상 : 부산, 울산, 경남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70명 내외)
 - 참석기관 : 유엔조달본부(UNPD),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 참가혜택 : **참가비 무료 (교재 제공)**
 - * 설명회 참가 시,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에서 가점부여
 - 주최 : 외교부, 대한상공회의소, UN
 - 주관 :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상공회의소
 - 주요내용 : 유엔조달본부 및 산하기구 소속 조달관 초청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 프로그램

일시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18 (화) 부산롯데 호텔	09:00~09:20	등록	
	09:20~09:30	인사말씀	
	09:30~10:10	유엔 조달시장 현황 및 입찰프로세스	UNPD
	10:10~10:20	휴식	
	10:20~10:50	유엔 조달시장 입찰 참가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0:50~11:00	휴식	
	11:00~12:00	유엔 산하기구(UNDP, UNICEF)의 조달 제도 및 특징	UNDP, UNICEF
	12:00~13:30	점심	
	13:30~16:00	1:1 개별 상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 참가규모 : 70명 내외(선착순 마감)
- 신청기간 : 2016. 9. 27.(화) ~ 10. 17.(월)
- 신청방법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 작성
 - ①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접속(<http://trade.busan.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이미 가입한 기업은 로그인 후 모든 2016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가능
 - ② 상단의 검색 메뉴 중에서 “지원사업 신청” 선택
 - ③ 좌측 메뉴의 “무역대응력” 선택 → “2016 UN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및 상담회” 선택
 - ④ 화면 하단의 “참가신청” 선택 →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 신청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통상지원센터 허재훈
- E-mail : hjh8@bepa.kr / 전화 1577-0062

별첨 1. 개최공문 1부

2.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UN조달시장 세미나 가신청서 양식 1부
3.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UN조달시장 세미나 상담신청용 양식 1부
4. 부산광역시 UN조달시장 설명회 및 상담회 참가신청서 양식 1부 끝.



잉커우시 한중FTA 시범구 및 물류 환경 설명회

- 일시 : 2016. 10. 19(수) 10:00 ~ 11:30
- 장소 :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강남구 삼성동)
- 세부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고
09:50~10:00 ('10)	등록 및 입장	
10:00~10:05 ('05)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05~10:15 ('10)	인사말씀	잉커우시 상무청 부청장, 국토교통부
10:15~10:35 ('20)	잉커우시 투자환경 소개	외경국 복란걸(葡蘭傑) 국장 (통역)외상복무국 김영호 부국장
10:35~10:55 ('20)	잉커우시 한.중FTA 시범구 및 통관 혜택 소개	
10:55~11:15 ('20)	잉커우시 물류환경 소개 - 만주리 철도를 이용한 동북 내륙. 유럽지역으로 진출 -	잉커우시 항만관리국 컨테이너운수회사 왕표(王彪) 총경리 (통역)외상복무국 김영호 부국장
11:15~11:30 ('15)	질의 응답	

- 참가신청 및 문의
 - 참가방법 : 이메일로 참가 신청 무료참가, 선착순 마감(이메일 : lgh867@kaila.or.kr, 성명, 소속, 연락처 기재)
 - 문의 : 한국통합물류협회 이규형 대리(T. 070-7090-6639)
- 장소 안내
 -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 1동 159-1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주변 지하철역 :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